

② 쌀은 정이다

③ 쌀은

나눔의 상징·통일의 씨앗으로

농부의 손 88번,



최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소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협은 등굣길 고교생들에게 '아침밥 먹기 캠페인'의 하나로 주먹밥을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흰 쌀밥에 고깃국'.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흔하게 들고 볼 수 있었던 서민들의 소망이었다. 춘궁기, 보릿고개로 불리던 극빈의 계절로 많은 서민들은 배고픔을 겪었다. 그래서 쌀이 당시에는 부의 상징이었다.

이처럼 한때 부(富)의 상징이었던 쌀이 이젠 나눔과 정(情)의 상징이 됐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대북 해빙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쌀 소비가 줄고 쌀이 남아돌면서 자연스럽게 쌀이 우리 사회에서 나눔을 통한 정이 된 것이다.


조선시대 흥년에 갭간을 열어 이웃에게 쌀을 나눠준 '경주 최부자 정신'이 최근 화제다.

부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지만, 경주 최부자는 1600년대 초반에서 1900년 중반까지 무려 300여 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며 만석꾼의 전통을 이어온 가문이다. 이처럼 최부자집이 300년을 넘게 만석꾼 부자로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은 최부자집 가문이 지켜온 가훈(家訓)이다.

가훈 대부분이 나눔의 정신이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가훈은 '1년에 1만석(5000가마) 이상을 모으지 마라' '사랑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흥년에는 양식을 풀어라'였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에 돌려 사회에 환원하고, 흥년에는 갭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웃과 쌀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가까운

부의 상징에서 애물단지로 전락
불우이웃에 쌀 나눠주고 대북지원 늘려
인도주의 실천·농민 살리기 '일거양득' 효과를



구례 운조루(雲鳥樓)의 200년 된 뽕주포 쌀을 통한 나눔의 정신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다. 운조루 뽕주포 아랫부분 마개에는 '타인 능력(他人能解)'라고 적혀 있다. 외부인도 이 쌀독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뽕주포 곡식을 가득 넣어놓고 배고픈 사람 누구든 쌀을 파 갈 수 있도록 했다. 광상시는 물론 지독한 춘궁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었다. 운조루 뽕주는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한 나눔의 정신이었다.

이렇듯 쌀은 예전부터 나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이런 경주 최부자와 구례 운조루 뽕주포 정신은 쌀을 통해 나눔의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쌀은 국제사회에서도 '인도주의'로 통한다. 전쟁과 기아, 홍수, 지진 등의 공포와 굶주림에 싸우고 있는 지구촌 곳곳 모든 민족·인종들에게 '인도주의'가 가득한 쌀이 전달되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인도주의 성격의 쌀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 등의 장벽을 없애는 파격적인 대우로 쌀을 맞이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쌀 소비가 줄고 남아돌면서 창고에 쌀이 넘쳐나지만, 좀처럼 갭간을 풀어지지 않고 있다. 대북 해빙의 씨앗이었던 쌀도 수년째 북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다.

이 때문에 넘쳐나는 전국의 갭간은 넘쳐나는 쌀이 썩어가고 있다. 소중한 쌀이 창고 안에서 벌겍게 썩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쌀을 썩힌 수령에게는 엄중한 문책이 주어지도록 했다. 따라서 당장 갭간의 창고를 열고 쌀을 선망하고 있는 배고픔과 굶주림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 동포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옛 선조의 지혜인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남아도는 쌀을 판매하기 위해 음식점 밥값을 쌀로 치르고 각종 경조사에

는 화환 대신 쌀을 보내는 등 이색적인 쌀 소비전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쌀을 나누다는 의미로 결혼식, 회갑연 등에 경축 화환 대신 우리 쌀을 보내 경사의 기쁨을 나눔과 동시에 결식아동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이색 운동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쌀을 통한 나눔과 쌀 소비 촉진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통일부는 최근 전남 쌀의 북한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장흥에서 생산되는 쌀 190t을 포함한 203t을 북한 수해 피해지역인 신의주에 전달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인원과 규모를 축소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등은 16일 장흥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7일 일진각 등지에서 환송식을 한 뒤 경의선지역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북으로 쌀을 운송했다. 이를 계기로 전남 쌀이 '천안함'으로 냉각됐던 남북관계 해빙의 씨앗으로 다시 심어질지 기대된다.

쌀의 의미가 나눔의 정신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쌀의 사회적 해석도 이제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인도주의와 나눔으로 가득한 쌀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천천히 씹어서/공순히 먹거나/밥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그 여러 날들/바바랍 평범으로/익어온 쌀인데/그렇게 허겁허겁/삼켜버리면/어느 틈에/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그게 사람이 아닌 거여/" (이현주, '밥' 중에서)

가로 4.5mm 세로 2.0mm 두께 1.5mm 크기의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선 농부의 손이 여든여덟번이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한자로 쌀(米)자가 위에 팔(八) 아래에 팔(八)이 합쳐져 나온 표현이지만 쌀이 밥이 되어 밥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야 하는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한반도는 벼농사에 적합한 곳은 아

- 민족의 문명 이끈 쌀
- 배고픔 달랜 음식에서
-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니었다. 상대적으로 여름이 짧고 감수장은 적은데다가 벼가 한창 생장할 5~6월에는 가뭄이 일수고, 수확을 앞둔 8~9월에는 수시로 태풍이 밀어닥쳤기 때문이다.

한국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쌀을 재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물 대는 눈을 만들었고 농법을 개선하는 등 수많은 시도와 수천년의 시간이 흐른 끝에 쌀은 주식(主食)이 될 수 있었다.

수천년 내려온 민족의 '꿈'이었던 쌀이 결과적으로 '문명의 발전'까지 이끌어 낸 셈이다.

하지만 고도의 경제성장과 서구화된 식생활 문화는 "쌀밥 한 번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강했던 쌀에 대한 열망마저 수그러지게 만들었다.

'귀한 곡식'이었던 쌀이 남아돌아 걱정인 '애물단지'로, 밀가루와 시리얼 같은 쌀대용 식품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 옛날 조상이 후손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척박한 환경을 개척해 쌀을 주식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후손들은 조상들의 꿈이

있던 쌀을 지키기 위해 쌀의 무한변신을 주도하고 있다.

질보다는 양의 위주였던 쌀 산업에서 이제 특화된 재배법과 다양한 가공법으로 진화를 거듭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아닌 맛있고 건강에 좋은 기능성 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

5면으로 계속

즐거움 한가위

전북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 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끼실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님들의 가정에도 늘 한가위처럼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전북장터 직원일동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복문어찜 전복구이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전북구이 전문점 **전북장터** 예약문의 TEL. 062-576-8600 각종 모임환영, 룸 9실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대형주차장 완비